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홀수형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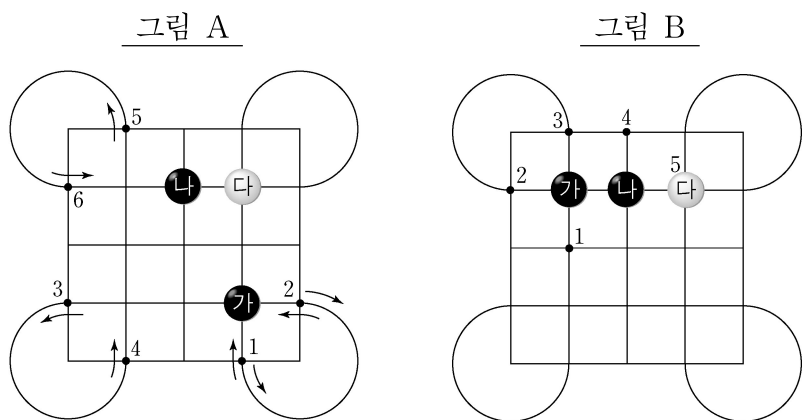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
- ② 겸손한 태도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해.
- ③ 매사를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해.
- ④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는 과정이 필요해.
- ⑤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해.

2. (물음) 이 강의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린이와 어른의 성대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 ② 소리의 진폭과 진동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③ 변성기 남녀의 성대 길이는 어떻게 다른가?
- ④ 남녀의 목소리는 언제부터 달라지는가?
- ⑤ 목소리의 높낮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3. (물음) 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가'를 '1'로 ② '가'를 '2'로 ③ '가'를 '3'으로
- ④ '나'를 '4'로 ⑤ '나'를 '5'로

4. (물음) 여학생이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지목했을 나라는?

| 국 가 | 국민 총소득 [단위: 십억 달러] | 1인당 국민 총소득 [단위: 달러] | 1인당 공적 개발 원조액 [단위: 달러] |
|---------|-----------------------|---------------------------|------------------------------|
| 한 국 | 682 | 14,193 | 9 |
| ① 미 국 | 11,711 | 39,644 | 67 |
| ② 캐 나 다 | 976 | 30,565 | 81 |
| ③ 독 일 | 2,752 | 33,309 | 91 |
| ④ 포르투갈 | 175 | 16,809 | 100 |
| ⑤ 파키스탄 | 97 | 627 | — |

-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이 대담에서 알 수 있는 전래 동요의 특징이 아닌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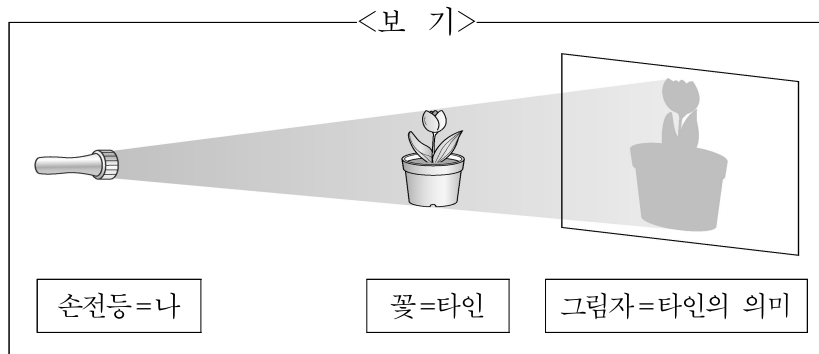
- ① 말하듯이 부른다.
- ② 놀이와 어우러져 있다.
- ③ 아이들의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 ⑤ 같은 노래라도 사람에 따라 달리 불린다.

6. (물음) 방송에서 이어질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 굽어 못 간다/등 굽으면 길마/길마는 네 구멍/네 구멍은 시루/시루면 검지
- ② 동무 동무 어깨동무/어디든지 같이 가자/천릿길도 멀지 않고/만릿길도 멀지 않다
- ③ 철뱅이 뽕뽕/얹을뱅이 뽕뽕/얹은 자리 얹거라/십 리 밖에 나가면/니 모가지 떨어진다
- ④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대추야 대추야 떨어져라/아이야 아이야 주워라/할배야 할배야 먹어라
- ⑤ 개똥불아 개똥불아/번쩍번쩍 개똥불아/이리 와서 나와 놀자/그리 가면 더웁단다/이리 오면 서늘하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인간관계’에 대하여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은 발상을 하였다.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전등의 빛을 꽃에 비추어야 그림자가 생긴다.
 ➡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상대방이 내게 의미 있게 된다.
- ② 손전등이 꽃에 가까워지면 그림자의 크기가 커진다.
 ➡ 타인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하면 상대방의 의미가 더욱 객관화된다.
- ③ 손전등의 빛이 밝아지면 그림자가 더욱 또렷해진다.
 ➡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상대방은 내게 더욱 깊은 의미를 띠게 된다.
- ④ 손전등의 렌즈에 얼룩이 묻으면 그림자가 왜곡된다.
 ➡ 타인을 대할 때 편견이 개입하면 상대방을 참된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 ⑤ 손전등을 비추는 방향이 바뀌면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진다.
 ➡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상대방은 내게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8. 시의회에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쓰고자 한다.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독자 분석】 • 시의회는 지역을 위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시민들의 청원을 심사·처리한다. • 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 【전략 수립】 •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론과 관련 법률을 활용하고, 시의회의 역할을 환기한다. ① |
| 【자료 수집】 • ‘통학 중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사례’,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설문 조사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자료로 활용한다. ② |
| 【내용 선정】 • 자전거 분실 문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 문제를 개선 사항으로 제시한다. ③ •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가 시민 교통안전,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를 제시한다. ④ •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한다. |
| 【조직】 • ‘사례를 활용한 문제 제기 - 요구 사항 - 기대 효과 - 촉구’의 순서로 구성한다. |
| 【표현】 • 공식적인 글에 걸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정중하게 표현한다. ⑤ • 요구 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분명한 어조로 표현한다. |

9.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자기 점검을 해 보았다. 수정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I. 문제 제기
 II. 재래시장 침체의 실태와 그 원인
 1. 실태 ㉠
 가. 매출액 감소
 나. 빈 점포 증가
 2. 원인
 가. 편의 시설 미비
 나. 서비스 의식 미흡 ㉡
 다. 대형 유통점 및 전자 상거래 중심으로의 유통 구조 변화
 III.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1.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대체 ㉢
 2. 서비스 의식 강화
 3. 특성화 전략 강구 ㉣
 가. 지역 특산물 시장 육성 및 지원
 나.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된 판매 행사 개최
 IV. 재래시장의 가치 강조 및 활성화 대책 촉구 ㉤



| | 점검 사항 | 수정 사항 |
|---|-------------------|-------------------------------------|
| ① | 불충분한 내용은 없는가? | ㉠의 하위 항목에 ‘생활 방식의 변화’를 넣어야겠어. |
| ② |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가? | ㉡은 삭제해야겠어. |
| ③ |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 ㉢을 ‘접근성과 편의성을 살린 시설 마련’으로 바꿔야겠어. |
| ④ | 하위 항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을 ‘지역 전통문화 발전 전략 강구’로 바꿔야겠어. |
| ⑤ |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가? | ㉤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의식 촉구’로 바꿔야겠어. |

10. 다음은 ‘사회 변화에 대비한 복지 정책’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자료를 결합하여 해석하고 주제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항 목 | 1995년 | 2000년 | 2005년 |
|--|-------|-------|-------|
| ㄱ. 여성 취업자 중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 비율 [단위: 백분율] | 11.4 | 14.0 | 17.5 |
| ㄴ.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 [단위: 명] | 1.65 | 1.47 | 1.08 |
| ㄷ. 전체 인구 중 30대 미혼 인구 비율 [단위: 백분율] | 1.71 | 2.40 | 3.75 |
| ㄹ. 평균 수명 [단위: 세] | 72.2 | 74.6 | 76.8 |

| | 자료 | 해석 | 주제 |
|---|---------|---|--|
| ① | ㄱ + ㄴ → | 출산보다는 사회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 미혼 여성을 위한 사회적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
| ② | ㄱ + ㄷ → |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날수록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약해지고 있다. | 독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 ③ | ㄱ + ㄹ → |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전문·관리직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 성별에 따른 보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
| ④ | ㄴ + ㄹ → | 어린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요구된다. |
| ⑤ | ㄷ + ㄹ → |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11. <보기>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요약한 것이다. <보기>에서 언급한 소재의 속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반박하는 댓글을 쓰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않은 것은?

| <보 기> | |
|--------------------------------------|--|
| [제목] 소를 닮은 사람들 | [제목] 소를 닮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
| 우리 주변에는 소를 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
| • 자기 일이 아니면 소 닮보듯 무관심하게 대한다. | → • 남의 일에 간섭하기보다 타인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① |
| • 무슨 일을 하든 소처럼 느려 터져서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 | → •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② |
| •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두고두고 지난 일에 연연해한다. | → • 자신의 지난 행동을 돌이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③ |
| • 황소고집이어서 자기의 생각을 좀처럼 꺾는 법이 없다. | → •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독심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④ |
| • 남이 충고하면 소가 느닷없이 뿔로 들이받듯 과격하게 반응한다. | → • 쇠뿔을 단김에 빼듯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도 필요하다. ⑤ |
|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해로운 존재이다. |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소중한 존재이다. |

12. 소비자 보호 기관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한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려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상담 신청

| 물품명 | 휴대 전화 | 모델명 | GJN-9510 |
|------------|--|-----|----------|
| 하자 및 불만 사항 |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전화기를 두 번이나 수리를 받았는데 또 같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서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고 ㉠ 항의했지만, 그제야 본사로 보내 부품을 교체하겠다고요. 전화기를 맡긴 뒤, 약속한 날이 되어 찾으러 갔더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며칠 뒤에나 다시 오랍니다. ㉡ <u>전화기 고장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런 성의 없는 서비스 태도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u> 소비자로서 이와 같은 처사에 ㉢ <u>어케 열받지</u> 않겠습니까? | | |
| 요구 사항 | ㉣ <u>어제는 제 친구도 같은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u> 해당 업체가 신속히 제품을 ㉤ <u>수리하거나 교환받도록</u>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달여 동안 낭비한 시간과 엉뚱하게 들인 수리비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 | |

확인 취소

- ① ㉠은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항의했더니’로 고쳐야겠어.
- ② ㉡은 전체를 개괄하는 진술이므로 글의 맨 앞으로 옮겨야겠어.
- ③ ㉢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비속어이므로 ‘어찌 화가 나지’로 바꿔 써야겠어.
- ④ ㉣은 ‘요구 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해야겠어.
- ⑤ ㉤은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 주도록’으로 고쳐야겠어.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비리’는 ㉦ 원칙적으로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가’, ‘극비리를’,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 ② 이 판국에 내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다.
- ③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④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 ⑤ 다들 제멋에 사는데 이러니저러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 건설 + -되다 ¹ → 건설되다 | 못 + -되다 ² → 못되다 |
| 발견 + -되다 ¹ → 발견되다 | 참 + -되다 ² → 참되다 |
| 평가 + -되다 ¹ → 평가되다 | 막 + -되다 ² → 막되다 |
| 처리 + -되다 ¹ → 처리되다 | 영광 + -되다 ² → 영광되다 |
| (용례) | (용례) |
| · 다리가 <u>건설</u> 되었다. | · <u>못된</u> 장난을 치다니. |
| · 유물이 <u>발견</u> 되었다. | · <u>영광</u> 된 자리에 서다. |

- ① ‘-되다¹’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② ‘-되다²’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는구나.
 ③ ‘-되다¹’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²’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④ ‘-되다’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²’는 그렇지 않구나.
 ⑤ ‘-되다¹’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²’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불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 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 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오는 응고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꾼이었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뎠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둬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 참판이든 뻥뻥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이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 줄이며 홀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둬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섰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데 얹치고 덜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개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빗도 다 못 ㉤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빗쟁이들은 우— 몰려들 거니깐.

응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다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튼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둬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버릇을 잘못 해 놓으면 여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 채고 응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 귀신의 놀음 같은 변화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정이는 체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삭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어렵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댕 말 가량은 될는지!

응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계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폐는 좋이 입어야 될 것이다.

(중략)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형겅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매고는 허리를 구뭇이 뺑소니를 ㉠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데굴데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굴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띠를 내려조겼다. 어이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건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똥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A]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B]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뻗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
이 복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 하고 대통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 김유정, 「만무방」 —

* 장리: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

* 도지: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는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 색초: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장황한 해설을 통해 작가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A]는 [B]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된다.
ㄴ. [A]에 드러나 있는 갈등은 [B]에서 극적으로 해소된다.
ㄷ. [A]와 [B]가 묶여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ㄹ. [A]에서는 불만의 대상이 개인이었다가 [B]에서는 사회로 확대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7. ‘응칠’의 행동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를 토대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ㄱ. 응칠이는 먼 곳에서 동생을 찾아온다.
- ㄴ. 응칠이는 담판을 지으려고 지주를 만난다.
- ㄷ. 응칠이는 지주의 뺨을 때린다.
- ㄹ. 응칠이는 논에 가서 도적을 기다린다.
- ㅁ. 응칠이는 도적을 잡기 위해 다짜고짜로 달려든다.

- ① ㄱ, ㄴ을 통해 동생을 생각하는 응칠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 ② ㄱ, ㄹ에서 응칠이가 동생을 찾아온 일이 도적과 관계됨을 알 수 있어.
- ③ ㄴ, ㄷ, ㅁ을 통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응칠이의 성격을 알 수 있어.
- ④ ㄴ, ㄹ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응칠이의 의지를 볼 수 있어.
- ⑤ ㄹ, ㅁ은 응칠이가 자신에게 미칠지 모를 혐의를 벗기 위해 한 행위일 수 있어.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진실한 농군’의 행위인 점에 비추어, 의도가 단순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 노동의 결과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쓸쓸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 ③ ㉢: 새로운 문제의 발생으로 사건이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된다.
- ④ ㉣: 싸움 중에 잠시 찾아온 침묵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표현되어 있다.
- ⑤ ㉤: 뜻밖의 상황을 당해 당혹스러워 하는 인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19.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알아주는 ② ㉡: 태우며
- ③ ㉢: 갚을 ④ ㉣: 거칠게
- ⑤ ㉤: 친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찍이 경제학자 클라크는 산업을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채취하거나 생산하는가, 그 원료를 가공하는가, 가공된 원료를 유통하는가에 따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 가령,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는 정보 통신 산업은 어디에 속할까? 이처럼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해졌고, 실제로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 기준이 존재한다.

먼저,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산업분류가 있다. 이 분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생산자의 관점에서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기준으로 분류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집합을 동일한 산업으로 정의한다. 대분류, 중분류 등 모두 다섯 단계로 구성된 이 분류 방법은 주로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산업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 수준에 따른 분류 체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연구 개발 투자가 많은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본다.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투자액의 비율로 정의되는 ‘연구 개발 집약도’를 사용하며, 그 평균이 4% 이상이면 그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분류한다. 이 방법은 첨단 기술 산업을 객관적으로 규정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산업의 평균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산업 전체로는 첨단 기술 산업이지만 그 안에 얼마든지 저급 기술 기업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기술이 진보한 결과 새로운 기술 영역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등장한 기술 영역은 신속한 실용화의 요구 때문에 그대로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보 기술에서 비롯된 정보 기술 산업은 이미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환경 기술 등도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의 변화는 기술 이외에 시장 수요의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령, 인구 구성과 소비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서 과거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수많은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 산업, 실버산업, 레저 산업 등은 표준산업분류에 나오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산업을 정의하거나 분류할 때에는 고정된 기준이나 체계보다 신축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구매력을 가진 인구의 구성이 달라지면 새로운 산업이 ㉠ 생겨나고 오래된 산업이 ㉡ 사라지는 현상도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 산업의 정의나 분류도 유연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클라크의 산업 분류는 기술 진보의 정도를 반영한다.
- ② 표준산업분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③ 연구 개발 집약도가 4% 이상인 산업이라도 그 안에 저급 기술 기업이 있을 수 있다.
- ④ 새로운 기술 영역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 ⑤ 시장 수요의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 분류가 가능하다.

25. <보기>의 A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학교는 기존의 어느 학과에도 소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그 학문의 명칭을 사용한 학과를 신설하였다. 그래서 로봇공학을 가르치기 위해 로봇공학과를, 분자생물학을 가르치기 위해 분자생물학과를 신설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학문의 명칭을 그대로 학과 명칭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위 글에서 설명한 기준이나 관점 중에 [A]과 유사하다.

- ① 클라크의 기준
- ② 표준산업분류의 기준
-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
- ④ 기술 영역을 중시하는 관점
- ⑤ 시장 수요를 고려하는 관점

2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기존의 분류로 파악하기 힘든 산업의 실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 ②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 ③ 다양한 산업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 ④ 각 산업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정보를 찾기 위하여
- ⑤ 동일한 산업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27. 낱말 사이의 의미 관계가 ㉠ : ㉡와 다른 하나는? [1점]

- ① 태어나다 : 자라다
- ② 들어가다 : 나오다
- ③ 올라오다 : 내려가다
- ④ 떠오르다 : 가라앉다
- ⑤ 나아가다 : 물러나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른 하늘에 달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다)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29.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30.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 (『육사 시집』 발문)

-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③ ‘낡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 ⑤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31. <보기>는 (나)와 (다)를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나)와 (다)의 기본적인 짜임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나)

1~2연

3~4연

5~6연

A

B

C

(다)

1연

2~3연

4~6연

A

B

C

이제 두 시를 자세히 읽고, 시상의 전개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볼까요?

- ① (나)에서 A의 두 연은 ‘하늘’, B의 두 연은 ‘지구’, C의 두 연은 ‘푸른 별’이라는 시어를 통해 각각 결합되고 있어요.
- ② (나)는 A에서 ‘하늘로 팔을 드러내는’ 숭고함을, B에서 ‘땅을 디디고 선’ 기쁨을 그리는데, 이것들이 C의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보는’ 거룩함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 ③ (나)는 (다)와 달리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더 응축되고 있어요. A에서 C로 갈수록 묘사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의미가 심화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 ④ (다)의 A, B, C는 모두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로 끝나고, ‘겨울’이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요. 반복이 이 시의 특징이에요.
- ⑤ (다)는 (나)와 달리 A는 한 연, B는 두 연, C는 세 연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B와 C는 A의 시상을 상세화하고 있어요.

32.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열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 ④ ‘원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 ⑤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반면, ‘이 사과는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의 이미지가 되었건 ‘이 사과는 둥글다’는 명제가 되었건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 이루어진 것이다. ㉤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 $2 + 3 = 5$ ’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 $2 + 3 = 5$ ’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앎[知]’이란 어떤 능력이나 정보의 소유를 의미한다.
- ② 절차적 지식은 다른 지식 유형의 기반이 된다.
- ③ 표상적 지식은 특정한 수행 능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 ④ 경험적 지식은 표상적 지식의 일종이다.
- ⑤ 감각 경험의 사례를 근거로 선험적 지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34.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가 표상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알아.
- ② 나는 세종대왕을 알아. 그분은 한글을 창제한 분이시지.
- ③ 우리 아저씨만큼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 ④ 내 동생은 2를 네 번 더하면 8인 줄은 아는데, ‘ $2 \times 4 = 8$ ’은 모른다.
- ⑤ 퀴즈의 답이 ‘피아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紧张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35.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36. ㉠~㉥을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천명(闡明)되기도 ② ㉡ : 습득(習得)한
- ③ ㉢ : 의거(依據)하여 ④ ㉣ : 형성(形成)된
- ⑤ ㉤ : 별개(別個)의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많은 미술가들은 대중 매체를 조작이나 선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불신하며, 대중문화를 천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해 왔다. 예를 들어 샌들은 ㉠「자유를 위한 힘찬 일격」이라는 조각 작품에서 힘찬 몸짓으로 텔레비전을 부수고 있는 인물을 형상화하여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그저 전면적인 비난과 거부로는 대중 매체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작품만으로 작가가 왜 이처럼 분개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텔레비전 수상기 몇 대가 부수어진들 대중 매체에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기에, 이 힘찬 조각은 오히려 무력해 보이기도 한다.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소위 ㉡「근본주의 회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경향의 미술가들은 회화 예술만의 특성, 즉 ‘회화의 근본’을 찾아내려고 고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극단으로 추구한 나머지 결국 회화에서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다. 그것이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사진, 영화, 텔레비전 같은 대중 매체를 부정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물의 이미지와 세상의 여러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회화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제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방식이 중요해졌고, 그 자체가 회화의 주제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대중 매체라는 위압적인 경쟁자에 맞서 회화가 택한 절박한 시도였다. 그 결과 회화는 대중 매체와 구별되는 자신을 찾았지만, 남은 것은 회화의 빈곤을 보여 주는 텅 빈 캔버스뿐이었다.

회화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 매체를 성공적으로 비판한 경우는 없었을까? ‘팝 아트’는 대중문화의 산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속에서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특히 ㉢영국의 초기 팝 아트에서 두드러진다. 그들은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것을 ㉤맥락이 다른 이미지 속에 재배치함으로써 ㉥생겨나는 새로운 의미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비판적 의도를 표출했는데,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한 태도나 낙관주의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비판적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 리히텐슈타인이 대중문화의 하나인 만화의 양식을 본떠 제작한 ㉨「파광!」과 같은 작품이 그 예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색이나 묘사 방법 같은 형식적 요소들 때문에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만화가 세계를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화가 전쟁을 다룰 경우, 전쟁의 공포와 고통은 밝고 경쾌한 만화의 양식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게 된다. 「파광!」에서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에서 흔히 보는 공중전 장면을 4미터가 넘는 크기로 확대하여 과장하고, 색도 더욱 장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만화의 재현 방식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 이 점에서 「파광!」은 추상화처럼 형식

에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내용도 역시 작품의 감상에 중요한 요소로 관여한다. 관객들이 「파광!」의 폭력적인 내용과 명랑한 묘사 방법 간의 모순이 섬뜩한 것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작가의 비판적인 의도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3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으로는 전면적인 거부가 가장 효과적이다.
- ② 근본주의 화가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 ③ 영국의 팝 아트는 미국에 비해 비판적 시각이 부족했다.
- ④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였다.
- ⑤ 리히텐슈타인의 미술은 근본주의 회화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이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 ㉡은 대상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과 ㉢은 반전(反戰)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③ ㉡과 ㉣은 대상의 이미지가 사라진 추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④ ㉡과 ㉤은 그리는 방식이 주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과 ㉥은 작품의 의미가 공허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9. ㉠~㉥ 중, <보기>의 사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영국 미술가 해밀턴은 1964년 당시 영국의 정치가 휴 게이즈겔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영화 속 괴물 휴 게이즈겔의 초상」을 제작하였다. 그는 이 정치가의 확대된 얼굴 사진을 놓고 그 일부를 공포 영화 「오페라의 유령」에 등장하는 유령의 모습처럼 바꾸어, 이 정치가가 비인간적 면모를 감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관객의 입장에서 「파광!」이 대중문화에 대한 성공적인 비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명랑한 색감과 만화적 재현 방식 사이의 부조화
- ② 확대된 크기와 다른 형식적 요소들 간의 충돌
- ③ 밝은 색채와 세밀한 묘사 방법 간의 불협화음
- ④ 폭력적 주제와 비판적 의도 간의 불일치
- ⑤ 재현된 내용과 만화적 양식 간의 모순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중모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루루루 날아나도 북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저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앞서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나)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쭙움쭙하니 정욱(程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하는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어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막 늘어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눈치 밝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 큰 장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 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조조가 좌우 산천을 살펴보니,

(다) [중모리]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골짜기 눈썹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 화초 목실 없었으니 앵무 원앙이 그쳤는데 새가 어이 올라마는, 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원조(怨鳥)라는 새가 되어 조 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거려 우더니라. 나무 나무 끝끝트리 앓아 우는 각 새 소리.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 귀촉도 귀촉도 불여귀라, 슬피 우는 저 초혼조. 여산 군량이 소진하여 춘비 노략한때로구나, 소텡 소텡 저 흥년새.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금일 패전이 어인 일고, 입빼죽 입빼죽 저 빼죽새. 자칭 영웅 간곳없고 도망할 길을 피로만 낸다, 피꼬리 수리루리루 저 피꼬리.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고리각 까옥 저 까마귀. 가련타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라, 병에 좋다고 쭈국 쭈쭈국. (중략)

㉡ 처량하구나 각 새 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울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여서 우는구나.”

(라) [아니리] ㉢ 탄식하던 끝에 ‘히히히, 해해해’ 대소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웃나이까?”

조조 대답하되,

“내 웃는 게 다름 아니라 주유(周瑜)*는 피가 없고 공명(孔明)*은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노라.”

(마) [엇모리]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광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 ㉣ 얼굴은 형산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리 허리 곱의 팔, 녹포염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로 호령하되,

“네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아는다 모르는다? 조조는 단지 말고 창 받으라!”

말 놓아 달려들어 등에 얼른 서를 쳐, 남에서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내리닫아 사문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풍 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 가 탕기령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 탕기령 베고, ㉤ 백송골이 꿩 차듯, 두꺼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행 쳐들어갈 제, 피 흘러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

- 「적벽가(赤壁歌)」 -

* 주유: 조조의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오나라의 대장군.

* 공명: 제갈량(諸葛亮).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촉나라의 군사(軍師).

4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봄빛이 완전한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② 군사를 다 잃은 조조가 정욱과 단둘이 도망가고 있다.
- ③ 조조는 숲에 숨어들어 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 ④ 조조는 큰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 ⑤ 조조는 전쟁 중에 죽은 장졸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2. (나)와 (마)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마)에 비해 상황이 회극적으로 연출되어 골계미가 살아나고 있다.
- ② (마)는 (나)에 비해 작중 상황이 급박하여 정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③ (나)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④ (나)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마)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 ⑤ (나)가 산문적 표현에 가까운 데 비하여, (마)는 노래로 부르기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② ㉡: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수용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 ③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
- ④ ㉣: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 ⑤ ㉤: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과 생동감을 살려낸다.

44. <보기>에 비추어서 (다)의 ‘새타령’을 해석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새타령’은 「적벽가」에서도 절창으로 꼽힌다. 새 모습 묘사와 새 소리 표현에 생동감이 넘쳐, 이름난 광대가 이 대목을 부르면 새가 날아들 정도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새의 울음을 표현한 말소리들이 서사적 상황과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전쟁 상황에 얹힌 의미를 표출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에 이어지는 ‘귀촉도 귀촉도’라는 울음소리는 ‘귀촉’의 뜻인 ‘고국으로 돌아감’과 연결되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군사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흥년새가 ‘소텅 소텅’ 하고 우는 것은 ‘소댕(솔뚜껑)’이나 ‘솔이 텅 빈 것’과 연결되어, 식량 문제로 고생하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② 삐죽새가 ‘입삐죽 입삐죽’ 하고 우는 것은 ‘삐죽대다’와 연결되어, 대군을 잃고 한심한 처지가 된 조조를 비웃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네.
- ③ ‘피꼬리 수리루리루’라는 울음소리는 ‘피’라는 말과 연결되어, 도망갈 궁리를 짜내기에 분주한 조조를 회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까마귀가 ‘고리각 까옥’ 하고 우는 것은 까마귀가 ‘효조(孝鳥)’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⑤ ‘쭉국 쭉쭉국’이라는 울음소리는 ‘쭉’의 약효와 연결되어, 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군.

4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서 ‘조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⑤ 병 주고 약 준다.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94년, 화성에 고도로 진화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화성의 지도들에 나타난, ‘운하’라고 불리던 복잡하게 얽힌 선들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화성의 ‘운하’는 1878년에 처음 보고된 뒤 거의 30년간 여러 화성 지도에 계속해서 나타났다. 존재하지도 않는 화성의 ‘운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19세기 후반에 망원경 관측을 바탕으로 한 화성의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특히 1877년 9월은 지구가 화성과 태양에 동시에 가까워지는 시기여서 화성의 표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보였다.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그린은 대기가 청명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으로 가서 13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해서 화성을 보이는 대로 직접 스케치했다. 그린은 화성 관측 경험이 많았으므로 이전부터 이루어진 자신의 관측 결과를 참고하고, 다른 천문학자들의 관측 결과까지 반영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정교한 화성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스키타파렐리의 화성 지도가 나오면서 이 지도의 정확성이 도전받았다. 그린과 같은 시기에 수행한 관측을 토대로 제작한 스키타파렐리의 지도에는, 그린의 지도에서 흐릿하게 표현된 지역에 평행한 선들이 그물 모양으로 교차하는 지형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키타파렐리는 이것을 ‘카날리(canali)’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해협’이나 ‘운하’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였다.

①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그린의 스키타파렐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우선 스키타파렐리는 전문 천문학자였지만 화성 관측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그는 마데이라 섬보다 대기의 청명도가 떨어지는 자신의 천문대에서 관측을 했고, 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8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짧은 시간에 특징만을 스케치하고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그것을 정교화했으며, 자신만의 관측을 토대로 지도를 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승리는 스키타파렐리에게 돌아갔다. 그가 천문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천문학자였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천문학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형을 지도에 그려 넣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스키타파렐리의 지도는 지리학의 채색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린의 지도보다 호소력이 강했다. 그 후 스키타파렐리가 몇 번 더 ‘운하’의 관측을 보고하자 다른 천문학자들도 ‘운하’의 존재를 보고하기 시작했고, 이후 더 많은 ‘운하’들이 화성 지도에 나타나게 되었다.

일단 권위자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알려지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관측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척도로 망원경의 성능보다 다른 조건들이 더 중시되던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수정되기 어려웠다. 성능이 더 좋아진 대형 망원경으로는 종종 ‘운하’가 보이지 않았는데, ㉠ 놀랍게도 ‘운하’ 가설 옹호자들은 이것에 대해 대형 망원경이 높은 배율 때문에 어떤 대기 상태에서는 오히려 왜곡이 심해서 소형 망원경보다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해명’하곤 했던 것이다.

46.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천문학과 지리학의 만남: 화성 지도
- ② 설명과 해명: 그린과 스키타파렐리
- ③ 과학의 신화: 화성 생명체 가설
- ④ 과학사의 그늘: 화성의 운하
- ⑤ 과학의 방법: 경험과 관찰

47. ㉠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이는 대로 직접 그림
- ② 지리학의 방식대로 채색함
- ③ 더 높은 배울의 망원경을 사용함
- ④ 다른 관측자의 관측 결과를 반영함
- ⑤ 관측 조건이 더 양호한 곳에서 관측함

48. 위 글의 사례와 <보기>의 유사점이 아닌 것은?

<보 기>

17세기 초 갈릴레이는 당시로서는 배울이 가장 높은 망원경을 사용하여 달을 관측한 뒤, 달에서 산과 계곡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갈릴레이는 이 발견을 토대로 전통적으로 믿어 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도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면 달은 천상계의 물체이므로 완전한 구형이어야 했던 것이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갈릴레이의 망원경이 달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대는 더 높은 배울의 망원경이 개발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이 무너질 때까지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 ① 망원경에 대한 불신이 개입된 점
- ②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이 논란이 된 점
- ③ 관측 결과의 수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 ④ 천체의 지형에 대한 관측을 소재로 한다는 점
- ⑤ 권위자의 주장이 오류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점

49.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측에서 사용하는 과학 장비의 우수성이 논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군.
- ② 과학적 관찰 결과가 이론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군.
- ③ 어떠한 표현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과학적 주장의 설득력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 ④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의 인식 차이로 인해 과학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군.
- ⑤ 지금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 이론도 미래에는 틀린 것으로 밝혀질 수 있겠군.

50. 글쓴이의 의도가 직접 드러나도록 ㉡을 바꾸어 쓴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경이롭게도 ② 굉장하게도
- ③ 기발하게도 ④ 갑작스럽게도
- ⑤ 어처구니없게도

[51~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랑의 시조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축루(空山鬪樓)*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기나
윤회 만겁(輪廻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 가엾은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공산 축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 침변: 베갯머리.

*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다)

우리 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네가 목불식정(目不識丁)*인 것이 철천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 애, 우리 서당 애.” 하며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예(例)의 서당 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 도(陶), 당국 당(唐)’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 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나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疑義)를 삽(挿)한즉*, 늙은 영감이 분연(憤然)히, “여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 ‘꼬끼요 도’는 없을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斷然)히 서당 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의 찌개 그릇을 둘러앉아서였다. 얼마나 인정미 넘치는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이냐.

사랑에 놓인 또 하나의 질화로는 이와는 좀 다른 풍경을 보였다. 머슴, 소배(少輩)들이 모인 곳이면, 신 삼기, 둥우리 만들기에 질화로를 에워싸 한창 분주하지마는, 팔씨름이라도 벌어지는 때에는 쌍방이 었디어 서로 버티는 서슬에 화로를 발로 차 온 방 안에 재를 쏟아 놓기가 일쑤요, 노인들이 모인 곳이면, 고담 책* 보기, 시절 이야기, 동네 젊은 애들 버릇없어져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 질화로를 둘러서 일어나는 일이거니와, 노인들의, 입김이 적어서 꺼지기 쉬운 장죽은 연해 화로의 불돌 밑을 번갈아 찾아갔었다. ㉠ 그리하여 기나긴 겨울밤은 어느덧 밝을 녀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우리 집은 어떠했던가? 나도 5, 6세 때에는 서당 아이였고, 따라서 질화로 위에는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찌개 그릇이 있었고, 사랑에서는 밤마다 아버지의 담뱃대 터시는 소리와 고서(古書)를 읽으시는 소리가 화로를 둘러 끊임없이 들렸었다. 그러나 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 그 소리는 사랑에서 그쳤고, 따라서 바깥 화로는 필요가 없어졌고, 하나 남은 안방의 화로 곁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대학(大學)』을 구수(口授)* 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내가 열두 살 되던 해에 그 질화로 옆을 길이 떠나가시었다. 그리하여 서당 아이는 완전한 고아가 되어, 신식 글을 배우러 옛 마을을 떠나 동서로 표박(漂泊)*하게 되었고, 화로는 또다시 찾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질화로의 찌개 그릇과 또 하나의 질화로에 깊이 묻히던 장죽, 노변(爐邊)의 ㉢ 추억은 20년 전이 바로 어제와 같다.

- 양주동, 「질화로」 -

- * 목불식정: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 * 의의를 삼한즉: 의문을 제기하니.
- * 고담 책: 옛날이야기 책.
- * 구수: 학문이나 지식 따위를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줌.
- * 표박: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냄.

5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작품의 바탕에 질대자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 ④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5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53. (가)의 ‘꿈’과 (다)의 ‘추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추억’에는 모두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다.
- ② ‘꿈’의 내용이 현실적이라면, ‘추억’의 내용은 환상적이다.
- ③ ‘꿈’과 ‘추억’ 모두 화자의 현실적 고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 ④ ‘꿈’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면, ‘추억’은 다양한 대상과 연관된다.
- ⑤ ‘꿈’과 ‘추억’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4.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황상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존재이다.
- ② ‘공산 측루’, ‘외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
- ③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입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④ ‘바람비 뿌린 소리’, ‘두어 소리’는 입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 ⑤ ‘침변에 시드는’은 입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55.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한’과 ‘눈물’의 관계를 ‘뿌리’와 ‘가지’에 비유하여 형상화했군.
- ② ㉡: 화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군.
- ③ ㉢: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 ④ ㉣: 겨울밤이 무척이나 길고 무료했다는 뜻이군.
- ⑤ ㉤: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56. (다)의 ‘질화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가난을 환기하는 소재로 설정되어 있다.
- ④ 정감이 넘치는 풍경을 연상시키고 있다.
- 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그러므로 ㉠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리하여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극에 대해 경고한다. 한 언어학자는 현존하는 북미 인디언 언어의 약 80%인 150개 정도가 빈사 상태에 있다고 추정한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북부에서는 기존 언어의 90%인 40개 언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23%인 160개 언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90%인 225개 언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 언어의 50%인 대략 3,000개의 언어들이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한다.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약 600개의 언어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되고, 종족 말살과 동화(同化)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 외에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 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어로 된 교육 자료나 문학 작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언어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라도 20세기의 히브리어처럼 지속적으로 ㉢ 공식어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그 언어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 종들을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얹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 공동체가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 주는 주류 언어로 돌아설 것을 선택할 때, 그 어떤 외부 집단이 이들에게 ㉣ 토착 언어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인 언어가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전 세계 언어의 50% 이상이 빈사 상태에 있다면 이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다.

왜 우리는 ㉤ 위험에 처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 준다. 언어는 인간의 역사와 지리를 담고 있으므로 한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역사적 문서를 소장한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불타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 된다.

5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언어의 소멸 가능성은 사용 인구의 수와 연관이 있다.
- ② 언어의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 ③ 언어의 소멸에는 전자 매체도 영향을 미친다.
- ④ 언어의 소멸을 막으려는 노력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 ⑤ 언어의 소멸은 문화의 손실을 가져온다.

58.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기 위해 관점이 다른 견해도 소개하고 있다.
- ③ 대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에 기대고 있다.
- ④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59. 위 글의 논지에 비추어 <보기>를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것은?

—<보 기>—

영어에는 1인칭 복수로 *we* 한 가지만 있으나, 자이세 어에서는 청자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 *núy*와 *níy*로 구별되고, 체로키 어에서는 ‘화자+청자’를 가리키느냐 ‘화자+제3자’, ‘화자+복수의 타인’, ‘화자+청자+복수의 타인’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 ① 언어가 발전해 가면서 구분 체계도 복잡하고 정교해진다.
- ② 언어 간의 차이는 인류의 언어 능력이 풍부함을 보여 준다.
- ③ 문법적으로 더 세밀히 구분을 하는 언어일수록 생존에 유리하다.
- ④ 국제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언어 간의 차이를 줄여가야 한다.
- ⑤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더 널리 쓰이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60. ㉠~㉤ 중, 문맥상 이질적인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